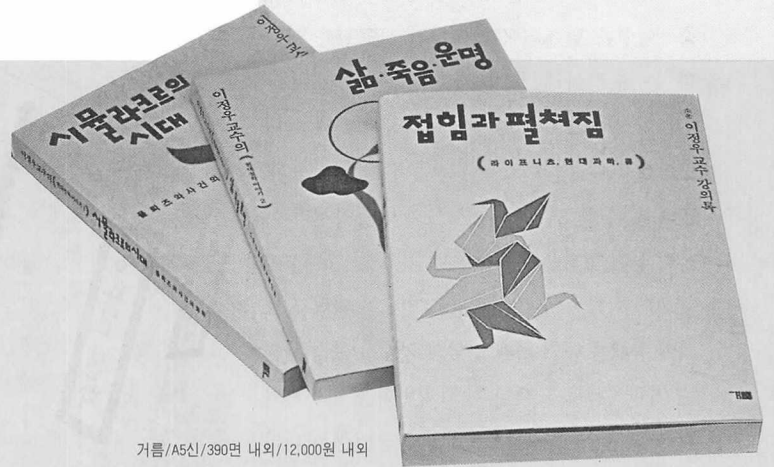


# 고전과의 창조적 대화로 여는 새로운 사유체계

《접힘과 펼쳐짐》 펴낸 이정우씨

철학자 이정우씨는 거대한 사유의 설계자다. 《접힘과 펼쳐짐》을 비롯한 세권의 강의록에서 그는 현대 프랑스 철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동북아시아 사유를 가로지르는 '자생적 탈근대론'의 큰 틀거리를 완성했다. 이제 그의 철학은 기학·무위사상·담론학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거름/A5신/390면 내외/12,000원 내외

철학자 이정우씨(41, 철학아카데미 원장)가 최근 철학 강의록 《접힘과 펼쳐짐》을 펴내 지난해 출간한 《시물라크르의 시대》《삶, 죽음, 운명》(이상 거름)과 함께 현대 프랑스 철학과 동북아시아 사유를 양 날개로 삼아 '자생적 탈근대론'을 향한 비상을 시작했다.

## 담론학 · 무위사상 · 기학의 모색

이씨가 그리는 철학적 이상향인 '자생적 탈근대론'은 세가지 방향으로 가치를 치면서 모색의 시간을 통과해왔다. 첫번째가 《담론의 공간》《가로 지르기》(민음사)와 《시물라크르의 시대》를 횡단하는 담론학적인 작업이다. 담론학이란 직접적인 경험의 차원부터 고도로 개념화된 이론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사유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무위(無位)사상으로 《인간의 얼굴》(민음사)과 《삶, 죽음, 운명》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간사에서 이름-자리의 체계(位)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환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탈주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였다. 이는 이씨가 평생 추구할 실천사상으로서 거대권력의 탄생, 대중사회의 욕망과 권력 등이 논의된다.

세번째는 《접힘과 펼쳐짐》에서 사유의 실마리를 펼친 '기학'(氣學)이다. '탈근대적 자연철학을 위한 서설'로 명명한 이 책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자연철학과 프랙털 이론, 급변론, 카오스 이론 등의 현대과학, 그리고 주역을 '접힘과 펼쳐

짐'의 구도에서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자연철학을 수립한다.

이런 세가지 방향의 물줄기는 '탈근대론'이란 사유의 하구로 흘러든다. 이씨가 넘어서고자 하는 근대란 세가지 차원에 걸쳐 있다. 인간이 자연을 기술적 조작의 대상으로 착취했다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불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자아가 내면성찰을 결여한 채 외화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근대성과 동일시된 맹목적 서구화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다.

“철학적 의미에서 근대성이란 한마디로 '분열의 철학'입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자아와 자아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대립하는 양상이었죠. 인간이 세계를 대상화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정복과 세계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철학은 대립을 넘어선 차이의 존중과 관용의 정신입니다.”

## 사건과 의미를 통합한 들뢰즈의 철학

이씨가 질 들뢰즈의 철학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들뢰즈는 구조주의적 틀 안에서 '사건(시물라크르)'을 사유한 사상가다. 서구의 철학구도에서 사건은 순간적인 것, 덧없는 것으로 폄하됐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니체·베르그송·화이트헤드 등의 '생성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적극적 사유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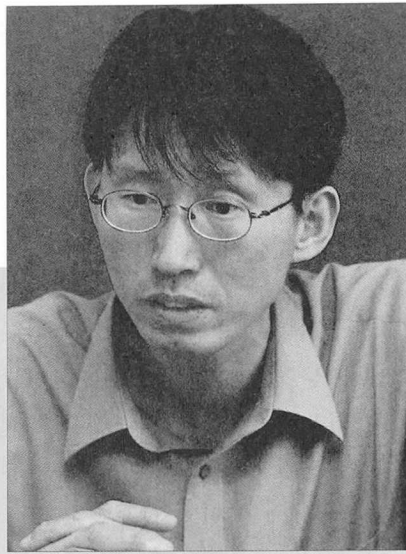
이런 생성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철학이

20세기 중엽의 구조주의다. 소쉬르·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질서·보편성·연속성을 추구한다. 후기 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연장선상에 놓이면서 구조주의를 넘어 사건을 복원한다. 들뢰즈는 후기 구조주의자로서 사건이 일정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해 구조주의를 역동적으로 변형한다.

“들뢰즈가 빼어난 점은 '사건'을 '의미'와 연결시켜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타를 친 야구선수는 안타·아웃·홈런·파울이라는 가능성의 장(場)에서 안타라는 경우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들뢰즈는 사건을 일정한 장 안에서 사유했습니다.”

야구경기의 안타·아웃·홈런·파울처럼 잠재성들의 장(이씨의 표현에 따르면 '객관적 선택')은 사회적 의미에서는 한 사회의 의견·통념·규율·관습 등의 '코드'로 표현된다. 이 세계는 객관적 선택의 장에 존재하는 여러 사건 가운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세계다. 이런 코드화를 넘어서는 전복의 힘을 들뢰즈는 욕망으로 파악한다.

“들뢰즈의 철학이 실천적인 사회사상과 이어지고 스토아 철학 및 선불교와 접목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들뢰즈의 욕망이론이 자본주의적 질서와 투쟁하는 실마리를 열었다면, 스토아와 선불교 사상은 사건들로 가득 찬 세계를 긍정하는 철학입니다.”



이정우씨

이씨의 '무위사상'은 들뢰즈와 스토아 및 선불교를 통합하는 사유체계다. 들뢰즈의 개념을 빌리자면, 사회란 욕망과 권력의 놀이가 들끓는 곳이다. '이름-자리'라는 사회의 욕망체계에 길 들여지기를 거부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무위인'이다.

#### '이름-자리'의 체계 거부한 무위인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나아갈 때 전통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접힘과 펼쳐짐》에서 모색된다. 라이프니츠의 자연철학과 현대과학 그리고 주역의 세계를 관통하는 개념은 '접힘과 펼쳐짐'이다. 세계는 무한히 접힌 주름이며 각 존재는 이 접힌 주름을 각자의 삶에서 펼쳐간다는 것이 라이프니츠 철학의 핵심이다.

라이프니츠의 주름개념은 주역과 만나 기학으로 흡수된다. 변화의 근저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힘이 다투고 있으며 그 다툼에서 현상적인 변화가 생성돼 나온다는 주역의 원리가 라이프니츠의 접힘과 펼쳐짐 개념과 만나는 것이다. 이 책에서 펼친 사유는 이씨가 전개할 기학의 첫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세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한의학을 기본으로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문명을 무위사상으로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 20세기 한국의 문화변동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씨는 무위인으로서 독자적인 사유의 틀을 펼쳐가겠다고 다짐한다. 우리 사회의 지적 권력인 교수직을 버리고 스스로 이름-자리가 없는 삶을 선택했듯 지배적 철학코드에 얽매이지 않고 동서양의 사유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무위의 철학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다.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병자입니다. 뭔가 응어리진 존재지요. 저는 철학이란 침을 놓아 그 응어리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사회적 의미에서 응어리진 곳이 바로 권력입니다. 여기에 사상의 침을 찔러 권력의 응어리를 분쇄하는 작업도 병행해나갈 생각입니다."

#### "동양정신으로 서양사상을 아우른다"

이씨의 학문방법론은 고전과의 대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서양 근대학문의 특성은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동양사상은 고전을 재해석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왔다. 그의 철학적 정향은 동양의 정신으로 서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것이다.

"저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역사를 봅니다.

국가·이념·사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급세 달라지지는 않죠. 고전과의 대화를 통해 미세한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고 병을 치유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씨가 강의록 형식으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해나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강의란 대화를 전제한다. 일방통행식의 억압적 담론이 아니라 상호 비판과 합의 속에서 사상의 삶이 덧붙여지고 널리 확산될 수 있다. 플라톤의 철학이 대화형식으로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의를 묶어내는 것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고 토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동감 있는 글이 되더군요. 하지만 난해한 사유를 쉽게 풀어나가면서 정교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는 논문을 통해 보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철학하기'의 참의미를 고민해온 이씨는 최근 젊은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교육기관을 세웠다. 지난달 10일 인사동에 등지를 튼 '철학아카데미'가 그것이다. 제도권 철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과 맥이 닿아 있는 철학을 마음껏 해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의 창립취지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다산, 혜강으로부터 80년대의 변증법, 90년대의 새로운 사유에 이르기까지 담론적 권력 바깥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또 모순과 투쟁해왔던 선철(先哲)들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이제 살아 있는 철학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이씨는 이번 학기에 두개의 강좌를 열었다. '타자의 사유—《광기의 역사》와 새로운 비판의 전통'에서는 현대사유의 기본 문법을 익히고, '주름, 갈래, 울림—라이프니츠와 철학'에서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강독을 통해 인간복제·디지털문명·환경과괴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지적 행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돼버린 그의 다음 강의록이 기다려진다. — 박천홍 기자